

그리스도인의 섬김

요 13:1-15

지금은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 집 앞 마다 다 탄 연탄재들이 쌓여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 탄 연탄재는 집 앞에 잘 쌓아 놓지만 늘 누군가에 의해 쓰러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 연탄재를 소재로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거기 있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걷어차고, 화난 사람들이 화풀이로 걷어차고, 장난기가 발동한 꼬마 녀석들이 공처럼 걷어차는 연탄재.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연탄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탄재는 다른 사람의 차가운 방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일이라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된 적이 있느냐’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된 적이 있느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그 다음 주일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들의 인생에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신 것을-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을 떨더라도- 하찮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분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죽음을 하루 앞둔 그 긴박한 날 밤에 유언처럼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건조하여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항상 먼지투성이지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녁은 만찬 중의 만찬인 유월절 만찬이니까 특별히 깨끗이 발을 씻어야 하겠지요. 보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주님이면서도 몸소 걸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이상하게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물질이 풍요하면 할수록, 생활이 편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현실 때문입니다.

1.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느냐?’로 평가합니다. 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은 다섯 사람으로부터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섬김을 받은 사람보다 더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백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은 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고 평가 받습니다. 이에 반해 평생을 섬기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예 ‘성공’이란 말 자체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야만 했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통념이었고 베드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자기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공한 삶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줄기차게 증거 되었던 진리였습니다.

2. 그러면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섬기는 삶을 살려면 우선 자존심을 버려야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씻기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발을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리를 숙이지 않고 발을 씻기겠다는 것은 안 씻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존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머리를 숙여!’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런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섬기는 삶을 살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발을 내 가슴으로 감싸 안아야만 합니다. 발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서는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발이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부분, 추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실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 추한 부분을 감쌀 줄 알아야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희생해야합니다. 발을 씻기려면, 대야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하고, 물 떠오고 발 씻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육체적인 희생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 5:13-16 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이라니 얼마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좋습니까? 그러나 소금과 등불에는 ‘자기희생’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짠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등불이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8절 “내가 너를 찢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찢기지 아니하면 너는 섬김의 의미를 모르게 될 것이고, 섬김의 의미를 모르면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섬김의 삶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 25 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영광중에 오셔서 모든 족속을 양과 염소로 가르고 한쪽은 영생에, 다른 한쪽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나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냐?’입니다. 섬김의 삶이 없으면 그날에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한 작은 대학의 교문에는 이상한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라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뜻을 품은 한 젊은이가 대학입학시험에는 합격되었으나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신앙심이 좋은 귀부인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다고 하여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돈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학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 후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낳고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어서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귀부인은 “겨우 늙어 죽으려고 돈을 빌리는가? 그런 목적이려면 돈을 빌려 줄 수 없네!” 젊은이는 이 말에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다. ‘정말 인생을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죽음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관을 고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공하여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라는 표어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섬김의 삶이 없다면 그 삶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교회가 임원임명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에 임원을 정하고 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임원들에 의해 교회의 여러분야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임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섬기는 삶’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임원을 정하지만 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도 표시 안 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기도로써 후원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섬김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